

담지역 지원사업 법률개정 해야

심 민 임실군수, 국회에 담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촉구

전국 댐소재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 임실군수가 7일 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 5일 임실에서 열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임이자 의원, 한정에 의원을 방문하여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은 종전 6%에서 10%로, 용수판매금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10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한완수, 이한기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담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심진강 의원은 1965년 최초로 준공된 이래 건설된 4개 수계 21개의 댐은 그간 용수 공급, 홍수 방지, 가뭄 예방, 전력 생산 등의 기능으로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댐 주변지역의 대

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는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구 국회의원의 이용호 의원과 예결위 소위원회의 정운천 의원을 만나 2019년 도 국가예산확보 도움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삼정지구 급경사지 정비, 임실 양지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신평 죽차마을 세천 정비 등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협력도 적극 건의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재난현장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순창군이 추진하는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군의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은 군이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했다. 사업비는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아,

을 연말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크게 스마트영상지원시스템 구축, 행동메뉴얼 재구축, 비상경보방송 시스템구축 등 3가지 모델

을 담고 있다.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이 이뤄져 사고 발생 시 군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풍수해, 지진, 산불, 감염병에 대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 개선작업으로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난종합상황실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단체문자 발송시스템과 지진가속도계측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재난특보 및 강우, 폭설시 비상경보방송으로 군민에게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23일 황숙주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스마트 영상 재생으로 재난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 할 수 있는 스마트 영상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군 안동용 자연재난계장은 "군민 스스로 다양한 재난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안전한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난발생시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재난종합상황실에 생중계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협업부서 13곳과 읍·면 재난담당공무원, 마을이장 등 관련자에게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 공직자 청렴도 탁월

10점 만점에 8.54점

순창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1등급 상향되며 순창군 공직자의 청렴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해 순창군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평가 결과에서 10점 만점에 8.54점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전국 군단위 평균 7.74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업무관계자와 군민들로부터 순창군 공직자의 청렴 문화가 개선됐다고 인정을 받은 셈이다.

전국 군단위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충남 예산군과 충북 음성군 단 두 곳에 불과해 이번 성과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군은 이번 성과에 대해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투명한 행정처리와 원칙을 중요시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평

가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또한 매년 공직자 청렴 및 반부패 교육 실시와 공직기강 감찰기능 강화, 읍면 명예감사관 제도 상설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부패방지를 위해 힘써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부정 부패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토대로 5등급으로 나뉘 평가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 지난 7일 청춘제가 열렸다.

평생교육 예술제 '청춘제' 개최

남원시노인복지관서... 우쿨렐레 등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7일 어르신들이 청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결실을 맺고 기쁨을 마음껏 뽐내는 제6회 청춘제가 회원 및 가족, 초청인사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남원지역 노인복지의 전당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남원시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배우는 기쁨과 정성으로 갈고 닦아 오신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맘껏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날 축제에서는 우쿨렐레, 색소폰, 난타, 통기타, 아코디언 등 21개 프로그램 발표 및 4개의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남원시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남원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고 내실 있기로 정평이 나있으며, 열린 강좌에 청춘제, 노래교실, 요가교실, 웰빙댄스, 기공체조, 웃음교실, 밴드레크네스 등이 있다. 또한 취미여가 분야에는 색소폰, 오카리나, 한국무용, 국악교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공예교실이 있으며, 교양강좌 분야에는 서예 문인화, 서예 붓글씨와 컴퓨터 기초반, 컴퓨터 활용반, 스마트폰교실 등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원주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이 열정으로 배우신 실력을 기쁜 마음으로 무대 위에서 뽐내시는 것을 보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긴다"면서, 축제가 나아가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모두의 축제로 해마다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농기술과 생활기술과제 순회교육을 했다.

임실군, 농촌여성 삶의 질·권익 향상 선도

생활개선회원 영농기술·생활기술과제 교육

임실군이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개 읍면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생활기술과제 순회교육을 21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PLS와 실생활 안전재해예방, 과제교육을 각 읍면사무소 및 농업인 상담소에서 읍면 생활개선회 회원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술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의 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촌여성의 영농 참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농촌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고령지 사과

국내육성품종 우수상 수상

남원지역 고령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과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사과, 배 국내육성품종 품질 평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품질 평가회는 사과와 배의 국내육성품종 확산과 우수성홍보 및 성과공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과 품종 감홍, 황옥, 투비에스, 피크닉 등과, 배 품종인 추황배, 황금배 등을 재배하는 전국 16개 시군 28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생산한 상품에 대해 계속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과품목에서 남원 문봉을 윤준씨가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 고령지 사과는 올해 잦은 냉해와 폭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농업인들에 노력에 의해 그 명성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내 과일에 핵심과제인 다양한 기호에 맞는 신제품 재배확대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원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제품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지켜야'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중국 여행 시 살아있는 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일반인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확산가능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의 고위험군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고,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